

敎養敎育課程 改善을 위한 研究

趙 義 淑*

- | | |
|-------------|----------------------|
| 序 文 | IV. 本校 敎養敎育 課程의 實際 |
| I. 研究目的 | V. 東京大學의 敎養講座 |
| II. 研究方法 | VI. 서울大學校의 敎養敎育改善 研究 |
| III. 理論的 背景 | VII. 結 言 |

序 文

解放以後, 敎育의 目標設定과 內容 選定에 있어서 日帝殘滓를 불식하려는 노력의 첫 試圖으로써 先進國에 모방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앞에 다가올 세계에 대한 發展을 期待하며 意慾과 熱望 그리고 조급한 나머지 우리의 體質에 잘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學校敎育 制度에 導入해 들인 것이 批判을 받게된 것이라고 볼 때 여기에는 一長一短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리어 先進國의 隊列에 육박해 갈만한 分野를 構築할 수도 있었고, 또는 그들보다 앞설만큼 새로 개발된 기술도 터득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敎育不在라고 全面的인 否定을 하기까지 近年에 이르러서 批判의 對象이 되게된 것을 部分的인 發展이나 成熟을 이루게된 것이 두드러지면 질수록 未分化的이고 未開拓的인 分野의 어두운 면이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고 均衡을 잃어버리게 된 탓이라고도 할 수 있다. 人間을 위한 敎育 人間社會를 위한 敎育이 均衡을 잃어버리게되면 社會의 秩序 紊亂과 貧富의 격차가 심해지고, 經濟的 不均衡狀態에서 市民들의 願望은 調和있는 社會秩序 속에서 人間의 生을 享有할 수 있는 社會福祉를 갈망하게 된다.

社會變遷의 과정에 따라서 敎育개선을 위한 시행착오는 항상 어느나라든지 있게 마련이지만 敎育이란 中斷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學校敎育의 改善을 위한 敎育개혁 작업이 오래동안의 정력과 關心을 쏟아온 일이라도 期待했던 것 만큼의 成果를 얻지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 비록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20퍼센트 밖에는 성공하기 어려움을 알게 된다. 또한 거기에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배경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의 노력하는 일들 중에서 얻은 경험으로는 완고하게

* 文理科大學 敎授

이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또는 복잡 미묘한 人間關係가 깔려있을 때에는 더욱더 改善은 더디고 不進狀態에서 정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잘 계획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社會構造的이고 政治的인 영향때문에 학교교육에 영향이 끼쳐진다는 사실도 결코 默過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正規 學校教育課程이나 非正規 教育機關에서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위하여 유행처럼 첨단을 걸어가면서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하던지, 사회의 현실적인 여건이 갖추어지기전에 구상하여진 교육내용의 개혁도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이유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사정은 地域的인 事情이나 그 機關의 기구상 맞지않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核心的인 目標가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는 듯하다. 行政的인 壓力이나 즉 어떤 界의 權威者들의 자문집단이나 권위있는 學父兄들의 壓力 또는 정채된 현직에 대한 不滿이 있는 現職教師集團, 업적을 위주로 하는 行政集團의 壓力등 여러 方面의 壓力에 의해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成長과 發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効率的으로 진행시킬 때에는 發展段階를 한단계씩 진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前者와 같은 壓力들이 否定的인 압력단체로써 상황을 바꿔놓을 때에는 또 다른 발전계획이 새출발을 해야하므로 教育改革이나 教育改善은 혁명적인 방법에서가 아니라 改革하려는 意志에서만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I. 研究目的

本研究는 본래 1979년도에 발간된 論文 “教養教育課程의 比較研究”, (崇田大學校論文集 第9輯, 人文科學研究所, 1979, PP. 67—79)의 後續 研究인바 급변하는 사회변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교양교육과정의 기본구조 편성은 1979년도에 그 틀을 만들었지만 교양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國內外的으로 高唱되어온 이때에 본대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調查研究해 보는 일도 앞으로의 方向설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해 본다. 하버드大學의 교양교육내용에 대하여는 上述한 論文에서 조사되었으므로 省略하고, 東京大學이나 서울大學校의 교양교육내용은 週刊朝鮮紙에 연재되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本研究에서는 本大學의 教養教育의 內容과 制度的 뒷받침을 詳述하여 後日에 참고자료로써의 意味가 있기를 바란다.

II. 研究方法

本研究는 教育現場에서 當面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教育改善을 위해서 계획되고 실천하는 現場研究法에 의하여 연구한 것이다. 現場研究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연구하는지의 目的觀이 뚜렷이 잡혀 있어야 한다.
- (2) 현장연구는 어디까지나 長期間에 걸친 실천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 (3) 理論의 背景이 확실해야 한다.
- (4) 새로운 理論은 創案하기 보다는 이미 찾아낸 原理와 方法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細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5) 연구과제가 이미 他機關에서 연구된 제목과 같아도 내용에 있어서 다르므로 중첩되어도 相關이 없다.
- (6) 單一變因 接近法에 의한 실험결과와 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7) 연구주제는 敎育的으로 重要하다는 觀點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 (8) 制限된 假設만을 檢證하고 결정적인 結論을 내리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 (9) 各種 多樣의 假設 檢證用具를 사용해야 할것이다.
- (10) 研究結果의 一般化는 먼저 학교자체에서부터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¹⁾

위에서 서술한 열가지 조건들을 전제조건으로하여 研究方法을 설정하였다. 本 研究에서 이미 계획되었던 연구방법중 세미나와 질문지조사는 다음 기회를 바라보면서 文獻研究와 자료 연구 및 비교 종합등에 주로 치중하여 진행시켰다.

Ⅲ. 理論的 背景

오늘 現代社會의 挑戰에 대응하려고 할 때에 進歩主義學者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어떤 危機에 닥치더라도 그 위기를 克服하기 위하여 Curriculum을 계속적으로 재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할 것이다. 다른 한편 本質主義學者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現實的인 有用性을 초월하는 價値觀에 따라서 Curriculum은 선택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Aristotle의 말을 빌린다면 오늘날의 敎育실천에 있어서의 모순은 實用性에 맞도록 선정되든지, 영원한 가치관에 의하여 설정되든지 또는 수단과 방법이 다르든지간에 그런것들은 論議밖의 일이라고 할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難局은 어느時代든지 있어왔고 앞으로 또 계속 있게될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곤란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러한 難局을 어떻게 打開해 나갈것인가만이 긴박한 질문인 것이다²⁾라고 한 것처럼 어떤 目的을 設定하는 일에 있어서든지 現實과 理想 어느쪽에도 치우쳐서는 안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敎育의 理想像을 추구하는 일이나 目的을 設定하는 過程에서 世界的인 眼目과 宇宙的인 未來像을 조감하지 않고 社會的 現實的 변천에만 급급하게 적응시키려는 立場에 서도 안되고 먼 앞날을 준비하기 위한 敎育이상만을

1) 金宗西, 現場研究法の 理論과 實際, 서울, 培英社, 1968, p. p. 46-54.

2) Brubacher, J.S., *Modern Philosophies of Education*, (4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69, p. 2.

충상해도 안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時代に 國際的 關係속에서 民族的인 긍지를 가지고 우리땅에서 우리사회구조속에서 날마다 生存의 價値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굳게 다져져야한다. 그리고 이 땅위에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될때 민족적 主體性을 가지고 어느 다른 땅에 자리를 옮겨도 人格의 기본구조에 흔들림없이 自我實現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教育課程 발전계획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要求 또는 必要(needs)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多樣하게 풀이 되고 있다. 몇몇 教育學者들은 個人的인 要求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각된 욕구(felt needs)로써 慾望이나 所願이나 希望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편이다. 그러나 다른 學者들은 學生들의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시적인 욕구나 희망에 기초를 두고 학교교육과정을 설정한다면 不健全한 結果를 초래하기 쉽다고 반대해오기도 했다. 또 다른한편에서는 要求란 많은 教師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꼭 필요하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것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진정한 要求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온 사람들도 있다.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人間發達 段階에 따라서 各級學校水準에 기준을 둔 그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初·中·高等 및 大學의 段階를 거치는 동안에 각각 다른 요구를 하게되는 것이라고 볼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과 상관없는 社會化過程을 거쳐서 形成된 人間이 없으므로 社會—文化환경에서 오는 外的 內的 자극에서 얻어진 자각된 욕구가 學習의 動機化를 促進시킨다고 볼때 이러한 요구들을 教育的 基礎로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희랍어의 "atom"과 라틴어의 "individual"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分離할 수 없는 기본단위인 것이다. 교수로 하여금 한 개인(individual)을 본질적으로 그 自身の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위해서도 지식의 본질 속에 숨어있는 眞理와 自由도 함께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³⁾

학생들로 하여금 知識習得의 길에 接近시키게하는 Curriculum은 教授들에게 먼저 知識의 本質은 조직적으로 가르쳐지는 正規課程을 통해서 영향이 끼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진 眞理나 自由의 概念속에 함축되어있는 것이다.

知識과 價値 또는 認識論과 倫理에 대한 문제 속에 있는 곤란점이나 그 概念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것이냐를 理解하는데 달려있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理解와 同時에 人間の 本質에 대한 理解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個性과 超個性的인 次元에서 教育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3) Brubacher, Op. cit., p. 26.

4) Ibid., p. 20.

人間의 動物學的 특징은 力動的이며, 成長하고 自動活動的인 原動力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靈魂이라고 알려진 精神(soul)이 점차 成熟되어져가며 人間像을 지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靈魂은 身體的, 精神的 兩面性에서 드러나며 또는 능력이나 재주등으로도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人間의 感覺器官이나 感性和 慾求등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敎育의 主된 目的은 本質的으로 한 個人의 自覺된 慾求를 充足시키며 능력 즉 精神的 또는 認知的 能力을 啓發하고 訓練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것과는 다른 견해를 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궁극적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Curriculum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敎育의 人間形成 助成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상과 같은 原初의 人間의 本質이 社會秩序 속에서 점차 社會化되어가는 過程에서 可變性을 지닌 複合的인 人間으로 形成되어간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社會學的 견해가 現代敎育의 概念의 中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아롱든 학교敎育을 통해서 初期에는 人間의 知性的 發達을 위해서 Curriculum을 구성하고, 後期에는 社會—經濟的 役割을 遂行하기 위하여 專門的인 또는 職業的인 Curriculum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現代社會의 一員으로써 生活할 수 있도록 돕는 過程이 敎育作用의 核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人間의 本質에 있어서 主로 外的要因을 對象으로 할때 社會—心理的인面과 社會—文化的인面, 그리고 社會—經濟的인 面으로 敎育이 고려되어야 한다. 內面的 要因으로 볼때 內面性 啓發이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만으로서가 아니라 敎師 自體에 內面性 啓發에 대한 關心이나 自覺된 慾求를 불러일으킬만한 준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Curriculum의 기초로서의 학습자의 요구(needs)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보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生活場面에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논리적이고 조직된 교과서 중심의 敎育에 있어서는 社會的 個人的 욕구에 기초를 둔 경험적 敎育과정은 경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나 학습자의 욕구나 학습자의 生活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無關하고 교과서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 全 精神力을 集中시키도록 요구하게 된다. 人間은 本質的으로 공통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되며 공통적인 문제들을 對面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적 핵심(Common Core)이 가끔 一般敎育(General Education) 또는 敎양敎育(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술어)이라고 불리워졌다. 또 어떤 中等學校에서는 中核敎育課程(Core Curriculum)이라고도 불리워졌다. 이 Core Curriculum은 사전에 “개별과목에 중심을 두지않고 넓게 社會생활을 생각하여 만드는 敎과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다른표현으로서는 公同적 학습(Common Learning)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廣領域의 개념이나 中核概念은 이미 있었던 개념이며 새로운 용어를 썼을 따름이므로

5) Ibid., p. 50.

많은 교육자들에게는 별로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⁶⁾

1950년대 초에 미국교육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항상 공통적인 生活의 필수조건들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학습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特定社會에서 共通的으로 生活을 영위해나가려면 공통관심사가 무엇이며 또 그 공통관심사가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유지해가도록 도울 것이며 各社會成員이 自由享有와 能力啓發과 自我實現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서 制度化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한 特定階層을 위한 배려에 지나지 않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생활화되어서 人間의 本質性을 恢復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계하여야 할 것은 공통적경험이라는 것이 同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읽고 쓰는 경험은 각급학교별로 또 個人別로 같지만 그 내용과 표현 방법은 욕구에 만족할 만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취하는 進度에 있어서도 각자가 지닌 能力에 따라서 만족할만큼 성취욕구를 만족시키므로써 自我實現이 각자의 個性에 따라서 早晚間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本校 教養教育課程의 實際(1965—82학년도)

본연구자는 본대학의 학교요람(1965~1982)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며 교양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변천되어왔는가를 밝힘으로써 後日에 史料로써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선 모든 자료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교과과정위원회 회의록, 교양교육연구위원회 기록과 교양교육위원회기록 그리고 UB프로젝트 Report(1978.7~1981.6), 숭실대학교요람 및 숭전대학교요람(1965~82)을 참고하였다. 기타 협의회기록 및 연구기록도 참고로 하였다.

1965학년도

문학부는 영어영문학과·철학과·사학과·기독교교육학과등 4개학과가 있었고 법경학부는 법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농촌사회학과등 4개학과가 있었으며, 학생정원은 760명이었다.

교양필수학점은 64학점을 개설하고 62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교양필수(62), 전공(72), 선택(26), 계 160학점이 졸업학점이었다.<표1참조>

중요교육에 대하여는 요람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대학은 기독교정신을 함양하고 신앙생활훈련과 원만한 학원 공동사회의 형성발전을 위하

6) Macomber, F.G., *Teaching in the Modern Secondary School*,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52. pp. 58-59.

표 1) 1965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목명	학년별	1	2	3	4	계
성	경	4	4	4	4	16
국	어	4				4
영	어	8	4			12
제 2	외국어	6	4			10
철	학	4				4
문	화	4				4
자	연	4				4
체	육	2	2	2	2	8
음	악	2				2
계		38	14	6	6	64

주: 본 대학에서 사용하여 오던대로 교과과정으로 표현하려 한다.

여 다음과 같이 대학예배를 갖는다. 매주 월·수·금·3회의 대학예배에는 전교직원과 학생 전원이 참석하여 숭실의 가정적 분위기를 조성 유지 발전시킨다. 학생은 매학기 예배 총회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할 의무를 갖게되며 이에 미달시는 교목의 지도하에 별도로 기독교과목을 이수하여 이를 보충한다.

성서과목 이수는 매학기 2학점 이수하게 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개론, 구약개론, 신약개론, 사복음서, 바울서신, 기독교사상사, 교회사등이다.⁷⁾

여학생들을 위한 교양과목은 전체 과정표에 표시되어있지 않고 6학점을 필수해야하며 교양필수로 하되 여성에티켓, 아동교육, 가정학특강, 가정문제연구, 사회문제연구등을 학습하도록 한다고 하였다.⁸⁾

1966학년도

농학과가 신설되면서 문학부에 4개 학과 법경학부가 3개학과 농학부에 2개학과가 되며 3부 9개학과로 학생전원은 860명이었다.

全學年 공동필수 교양학점은 60학점으로 하고 제2외국어(2)가 감축되었으며 음악(2)이 폐지되었다.

교양교과과정표는 아래와 같다.<표2참조>

1967학년도

66년도와 같이 9개학과이며 학생정원도 860명 동일하다. 교양과정도 66학년도와 동일하게

7) 숭실대학 요람 1965, p. 79.

8) 위의 책, 1965, p. 81.

〈표 2〉 1966-67-68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목명	학년별		3	4	계
	1	2			
성 경	4	4	4	4	16
국 어	4				4
영 어	8	4			12
제 2 외국어	4	4			8
철 학	4				4
문 화 사	4				4
자 연	4				4
체 육	2	2	2	2	8
계	34	14	6	6	60

60학점을 설강하였다. 그러나 졸업에 필요한 교양취득학점의 최저학점은 52학점이며 전공(71) 선택(37) 계 160학점이었으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표2참조〉

문제점

(1) 졸업에 필요한 학점160에 의거할때 이수해야할 학점 및 시간이 과다(過多)한 것이었다. 참고로 문교부기준과 본교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문교부)	(본대학)
교 양	30	52
전 공	71	71
선 택	53+(6)	37
	160	160

(2) 본교성적평가의 기준은 20:20:60(문교부기준 30:30:40)의 實效性을 강조하려면 과다한 시간의 부담으로는 대학생들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ㄱ) 출석, 과제, 전공분야에 대한 自律自習의 학구적 분위등이 병행하기 어려움.

ㄴ) 課外活動을 강조하여도 시간적 여유가 없음.

ㄷ) 社會生活에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함등을 들 수 있다.

(3) 각 학과별 영역(Scope)과 配列(Sequence)의 合理性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67학년도부터 김형남 학장의 취임에 따라서 자위원회제도를 조직하였으며 이때부터 교과과정위원회가 발족되어 전대학의 교육과정의 균형과 배정, 편성을 위하여 상기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조정하게 되었다.

여학생 교양필수 교양가정학 6학점을 이수하되 3학년까지 매학기마다 1학점씩 이수하고 교

1967학년도 각과별 학점 및 시간배당 비교표

<표 3>

학과별 분야별	영문과				철학과				사학과				기독교교육과				범학과				경제과				경영과				농학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학점	34	14	6	6	60	34	14	6	60	34	14	6	60	34	14	6	60	34	14	6	60	34	14	6	60	34	14	6	60	34	14	6
시간	86	16	8	8	68	36	16	8	68	36	16	8	68	36	16	8	68	36	16	8	68	36	16	8	68	36	16	8	68	36	16	8
선 택	8	8	10	9	35	8	4	10	11	33	8	6	26	8	4	6	9	27	8	4	8	4	24	8	8	6	6	28	4	4	6	6
전공 ()은 시간	424	28	24	80	4	26	34	30	94	428	33	27	92	425	30	30	89	424	32	28	88	(8)	(30)	(34)	(27)	(99)	(4)	(32)	(28)	(24)	(88)	(8)
합계	46	46	44	39	175	46	44	44	45	179	46	42	180	46	46	45	42	179	46	43	44	40	173	46	44	44	37	173	44	48	42	40
계	48	48	46	41	183	48	46	47	187	48	48	49	50	195	48	48	47	186	48	48	46	42	184	48	50	48	41	187	46	54	46	42
체	6	6	6	6	24	6	24	6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자치활동	2	2	2	2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이수시간계	56	56	54	49	215	56	54	49	215	56	54	49	213	219	213	213	213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교 적	4	6	8	7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총 계					240	244	244	244	252	244	238	241	244	238	241	244	244	238	241	244	244	244	244	244	244	244	244	244	244	244	244	244

육내용은 사회적요구와 개인적 요구에 맞도록 연구하고 개선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

67학년도의 各科別 學點 및 時間配當比較表를 보면(표3참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은 요람의 학점과 실제 이수한 시간수와의 차이가 많은 것이다.

(1) 교양과목학점은 60학점으로 전학과가 통일되어 있으나 이수시간은 68시간으로 학점과 이수시간이 동일하지 않다.

(2) 각 학과별 전공과 선택과목에 있어서도 이수학점과 이수시간이 다르게 되어 있다.

(3) 체플시간 주당3시간 4년간과 自治活動時間 2시간 4년간 교직시간 4년간에 25학점 모두 합하면 240~252시간을 이수하고 160학점으로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시급히 조정되어야 했다.

1968학년도

66—67—68학년 3년간은 66학년도와 동일한 교양과정에 의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68학년도에는 농촌사회학과는 폐지되었으며 공과계열에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등 2개 학과가 신설되어 10개 학과가 되었으며 학생정원은 1,000명이 되었다.

1969학년도

무역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등 4개 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문학부에 4개 학과, 법경학부에 4개 학과, 농학부에 1개 학과, 그리고 공학부에 5개 학과이며, 학생정원은 1440명이었다.

기독교과목(16)을 12학점으로 감축하고 영어가 2학점 감축되었으며 제2외국어를 2학점 감축하고 수학(4)을 개설하여 교양필수 56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표 4〉 1969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목명	학년별	1	2	3	4	계
성	경	4	4	4		12
국	어	4				4
영	어	6	4			10
제 2의	국어	6				6
철	학	4				4
문	화		4			4
자	연	4				4
수	학	4				4
체	육	2	2	2	2	8
계		34	14	6	2	56

문학부, 법경학부, 농학부, 공학부, 4개 학부에서 학부의 성격에 따라 수학, 물리, 자연과

학등의 과목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1970학년도

기독교교육학과와 농학과가 폐지되고 사회사업학과와 전자계산학과가 신설됨으로서 문학부에, 영·철·사·사사학과를, 법경학부에 법·경제·경영·무역학과를, 공학부에 화공·섬유·전자·전기·기계·전산학과가 소속되어 모두 3부 14개 학과이며 학생정원은 1480명이었다.

70학년도부터 군사교육(6)이 신설되고 사회과학과목으로 정치학개론(2), 사회학개론(2), Lab(2)을 신설하여 64학점 개설하고 56학점을 졸업학점 필수취득으로 하였다.

70년 9월에 알찬 대학교육을 실시하기위해 본 대학 재단과 남장로교 고등교육재단이 유지 경영하던 대전대학이 통합하여 숭전대학으로 문교부에서 승인받았다.

교양과정표는 다음과 같다.<표5참조>

<표 5> 1970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학년별 과목별	1	2	3	4	계	비 고
성 경	4	4	2	2	12	
국 어	4				4	
영 어	6	2	2		10	
제 2외국어	4	2			6	
문 화 사	4				4	
철 학	4				4	
자 연	4				4	
수 학	4				4	
정 치	2				2	} 4
사 회	2				2	
한 문	2				2	
L A B	2				2	문리, 법경대만
체 육	1	1	1	1	4	문리, 법경대만
교련(가정)	2	2	2		6	
계	43	11	7	3	64	

1971년 12월에 숭전대학교로 승격인가 되었다. 14개 학과에 학생정원만 증가되어 1520명이었다. (서울 캠퍼스)

(1) 1971, 10, 12에 서울캠퍼스에서는 ROTC를 국방부로 부터 인가받아 교양선택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2) 기독교과목은 71학년도 입학생부터 8학점으로 인하하여 이수하게 되었고,

(3) 國民倫理(4), 한문(2), 자연과학실험(1)이 개설되었고 영어가 2학점 증가되었다.

(4) 제2외국어(4)는 교양선택이 되었으며, 사회학개론(2)은 폐강이 되었다.

(5) 160학점중 교양필수가 문리, 법경대 56학점이고 공과대학이 54학점으로 조정되었다.
(표6참조)

〈표 6〉 1971—72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목명	학년별	1	2	3	4	계	비 고
성 경		2	2	2	2	8	
국 어		6				6	
영 어		4	4	4		12	
L A B		2				2	
국 민 윤 리		4				4	
철 학		3				3	
문 화 사		3				3	
자 연 과 학		4				4	
자 연 과 학 실 체		1				1	
교 련(가정)		1	1	1	1	4	
한 문		2	2	2		6	
							문리, 법경대만
계		34	9	9	3	56~54	

숭전대학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은 첫째, 미국장로교 한국 선교부 Frank Wilson 팀에 의하여 한국의 장로교 기독교대학(숭실대, 계명대, 서울여대, 대전대등)4개대학과 일본의 1개대학에 관한 심의 및 건의를 1965년에 연구조사 보고된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1968년의 동 선교부 교육심의회(Educational Consultant)에 의하여 선교사업으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번째로 1972년에 이르러 국내적으로 고등교육 개혁에 관한 의지가 더욱 강하게 표면화되면서 본대학에서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1972년 3월 13일부로 아세아기독교고등교육진흥회(Commission for the Advancement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에서 “한국기독교고등교육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綜合研究”의 연구책임대학인 서울여자대학에게 연구비 지급통고를 하였다. 공동연구대학인 본대학에서도 本研究者의 책임下에 共同研究者인 최지운교수와 함께 첫째영역인 ‘歷史的 理論的 觀點에서 본 한국 기독교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평가’를 연구보고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논문은 1973년 11월에 제1부는 본 대학담당이었고 제2부는 한국의 현행 기독교대학 교육 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서울여자대학이 담당하고, 제3부는 기독교대학 학생인구의 특성과 대학교육을 통한 태도행동의 변화를 계명대학에서 담당하여 모두 223페이지 단독논문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⁹⁾

9) 三個大學 공동연구, 한국기독교고등교육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綜合研究, (숭전대, 서울여대, 계명대) 서울여자대학출판부, 1973.

1972.7.1에는 기독교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독교 고등교육 연구세미나”를 본 대학의 주최에 의하여 위의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하였다. “한국 사회와 기독교대학의 방향”이란 주제하에 (1)철학 및 기독교적 측면(安炳茂교수) (2) 사회 및 교육적 측면(尹泰林교수) (3)국가발전적 측면(崔相業교수)에서 주제발표를 각각하였다. 각 주제에 대한 토의는 趙要翰, 張眞鎬, 金光洙 각 교수가 담당하였다. 그 내용은 송진대학 신문 198號(72.7.25발행)에 전재되어있다. 공동연구과정에서 교내 대학별 협의회와 관련대학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목실의 기능 및 기독교과목 운영에 대한 협의회등 수차례에 걸쳐서 연구조사되었고, 자원인사들과의 면접 및 질문지등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연구 검토하게 되었다.

1972.5.5에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침을 세우고 문제점을 토의하였다. 방침 : (1)교양과목은 본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타당성있게 조정한다. (2)현재 교양과목은 문교부에서 모형교양교육과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준하여 권장하고 있으나 과목 이수단위와 내용이 각 대학마다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수단위를 본대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3)전공과 선택은 과목이수단위학점을 송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서울대 5개 대학을 비교하고 과목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 하여 교과과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기준학점내에서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표 7> 문교부 지시 교양학점과 본대학 현행 교양학점 비교표

과목	구분	문교부지시	본 대학
성경	영역	0	8
국민윤리	영역	4	4
영어	영역	6	14
국어	영역	6	6
철학개론	사론	3	3
문화사	사론	3	3
자연과학개론	사론	3	6 (8시간) 문리대만 이수
체육	체육	4	4 (8시간)
교원(가정)	학점	6(교련)	6 (12시간) ...교련 6(8시간) ...가정 6(자연과학대신 법정대, 공대만이수)
한문, 사회, 자연계열에서 6과목 선택. 13학점	문	2	2 (인문, 사회계만 이수)
		계 2외국어는 자유선택으로 할 것	
계		48	54~56

본대학신문의 1972년 7월25일(198號) 社說에 “大學教育 改革案발표를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972년 6월 27일 “大學의 地域的 特性 學問系列別 입학, 부전공제, 졸업이수학점인하 등을 골자로하는 대학교육 개혁방안을 公表하였다. 또한 이 改革案을 73학년도부터 자원하는 대학

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하는 방침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앞으로 이 개혁안의 실천 수행에 있어 문교부는 대폭적으로 각 대학의 自律性에 맡겨 필요하면 지원도하고억 제도한다는 기본 태도를 밝히고 있음을 감안할때 대학으로서는 종래와 기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운영체제로 재정비하지않으면 아니될것이고, ………”라고 하였다.¹⁰⁾ 그때 상황으로는 본 대학은 종합대학교로 승격은 되었으나 양 캠퍼스 운영상 문제와 교내적 行財政問題,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문제 등 자체연구와 자체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게되는 때였다.

70년도 초에 國內的으로도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意志가 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로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와 USAID/Korea의 주체로 연세대학교가 주관한 “地域大學特性化를 위한 세미나”(1972. 4. 27—28)와 “고등교육의 개혁”(1972. 10. 4~7)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아세아지역 여자 기독교대학 총 학장회의를 갖고 “女性 基督教教育의 未來”를 위하여 女性이란 특수성과 고등교육의 당면한 문제점과 그리고 기독교기관으로서의 대학등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國內的으로는 敎養教育으로서의 社會教育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72.6.23—24) 갖게 되었다. 셋째로 한국교육학회에서는 “한국교육학의 발전”(1972.6.10)을 주제로 하여 1945년부터 1972년까지의 교육을 재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넷째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72.10.13—14) “한국교육이념 목표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새로운 社會變遷에 대처할 수 있는 가치관정립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80년대 또는 2000년대를 向한 교육적 설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재검토 또는 방향모색을 하게 된 때에 본대학에서도 시대적요청을 받아들일만한 준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72년 여름에 교무위원 및 기획위원 합동 학사개편 심의 및 실험대학 실시안을 성안하여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1973학년도

1972.10월에 문교부로부터 대학교육개선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되므로 문리과대학과 법경대학은 졸업학점을 140학점으로 인하 조정하게 되었다.

문리과대학과 법경대학은 실험대학이 되면서 교양과목 이수학년을 다르게 배정하고 있으나 인문, 사회계가 공통으로 52학점이며, 공과계가 53학점으로 조정되었다.

73학년도부터 문교부에서 국사2학점을 교양필수로 지정하였으므로 본대학에서는 이미 개설되었던 한국문화사를 국사로 개칭하여 종전대로 이수하게 되었다.

10) 송전대학교신문, 198호 (1972. 7. 25)

1973년 4월 14일에는 제1회 文科大学 教授協議會를 개최하여 Curriculum, 강의방법 개선 을 위한 토의를 하였다.

本研究者는 첫째 발제제목으로 “文科大学의 性格과 目的”을 발표하였고, 둘째는 서울여자 대학 이수덕교수가 “교양교육에 관하여”를 발표하였으며, 셋째는 本校 최지운교수가 “Syllabus 작성에 관하여”를 발표하였다.¹¹⁾

73년 8월 29일 실험대학관계회의에서 실험대학 운영 계획중 대학별, 학과별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계획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맡아서 조정하고 정비하게 위임되었다. 그리고 학사 전 반에 관한 개혁도 계획하기로 되었다.

73년 8월 10일부로 작성한 실험대학운영 보고서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실험대학 운영의 계획과 실제”는 본대학의 실험대학 프로그램(1973년도 제1학기)에 관한 분석평가에 관한 중간 보고서였다.

실험대학운영 및 평가위원회(서울캠퍼스)의 一員인 本研究者는 전교의 교육과정 編成의 재 조정을 위하여 연구하여 교무처와 더불어 교양, 전공, 선택, 부전공 교직과정등의 배정원칙 과 조직적이며 조화있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수차례 걸친 교수협의회 및 교수세미나등을 개최하게 되었다.

<표 8> 1973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목명	학년별	1	2	3	4	계	비 고
성 경		2	2	2		6	
국 어		4				4	
국 어 작문		2				2	
영 어		4	2			6	
SE		2				2	
LAB		2				2	
한 문		2				2	인문, 사회계만
국 민 윤 리		2				2	
철 학		3				2(1)	인문, 사회계만
자 연 과 학		2(1)				3	
(실 험)		3				2	택 2(타계열)
세 계 문 화 사		3				3	
한 국 문 화 사		2				3	
(국 사)		3				3	
사회계 과목1		3				3	
수 학		6				6	공과계만
체 육		2	2			4	
교련(가정학)		2	2	2		6	
계						50~53	

11) 숭선대학신문 208호(1973. 4. 25) 전재됨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73년 10월 26일에 문리대, 법경대학 학장 및 주임교수회의에서 문리대와 법경대는 50학점으로 하고 전산학과 및 공과계는 53학점으로 합의하여 교과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되었다. (표8 참조)

1974학년도

1973년 12월에 공과대학이 실험대학으로 선정되며 공업교육학과가 신설되었고, 문리과대학에는 전자계산학과가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3개 대학에 15개 학과가 있었고 입학정원이 440명이 되었다.

공과대학은 73년 12월에 교양필수를 51학점으로 인하조정하여 검토한후 74년 1월 14일에 교과과정위원 및 공과대학 주임교수 합동교수회의에서 결정하고 74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3) 3개 대학이 실험대학으로 인정되면서 74학년도부터 교양과목을 재조정하여 인문, 법경계는 50학점이고 공과계는 51학점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표9 참조)

<표 9> 1974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목명	학년별	1	2	3	4	계	비 고
성 경		2	2	2		6	
국 민 윤 리		2				2	
국 어		4				4	
국 어 작 문		2				2	
한국문화사 (국 사)		2				2	
영 어		4	2			6	
S.E		2				2	
LAB		2				2	
철 학		3				3	
세계문화사		3				3	
사회계과목 (정·경·사)		3				3	
자 연 과 학		2				2	인문, 사회계만
〃 실험		1				1	〃
수 학		6				6	자연계만
한 문		2				2	인문계만
체 육		2	2			4	
교련(가정)		2	2	2		6	
계		38~39	8	4		50~51	

1974년 2월 16일 文敎部가 시달한 法定敎養敎科目的 改定事項은 아래와 같다.

- (1) 一般敎養科目的 학점배정기준을 전체교육과정의 30%를 계속 유지할 것
- (2) 國家觀을 위한 敎科目(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만 법정과목으로 존속케 할 것

(3) 그 밖의 교과목의 지정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일임하되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망라하여 균형있게 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1974년 7월 25일에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졸업제도의 종합적개선방안신청에 따르는 교양과정 개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ㄱ) 문리대, 법경대는 국책과목인 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신청하고 미비한 점을 앞으로 연구개선하도록 할 것

ㄴ) 공과대학의 공업경제과목은 경제(사회계과목)로 과목변경하여 기초공통과목에서 교양학점으로 옮기기로 할 것

ㄷ) 공과대학은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우선 신청하고 앞으로 연구하여 개선하기로 할 것
국민윤리(2) 한국사(2) 교련(6) 체육(4) 성경(6) 국어(3) 영어(6) SE(2)과Lab(2)중 택1
철학개론(3) 경제학개론(3) 문리(3) 수학(6) 등 교양필수 학점을 44학점으로 함

75학년도 입학생부터 문리대, 법경대는 50학점 공과대는 44학점으로 인하조정하여 실시한다.(표10참조)

<표 10> 1975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목명	학년별	1	2	3	4	계	비 고
국민윤리		2				2	
성경		2	2	2		6	
국어		4(3)				4(3)	
국어작문		2(1)				2(1)	
영어		4(6)	2(0)			6(6)	
S.E		2(0)				2(0)	
L A B		2				2	
국사		2				2	
철학개론		3(0)				3(0)	
세계문화사		3				3	
자연과학 (실험)		2(1)				2(1)	공과계만
자연과학		3				3(0)	인문, 사회계만
사회계과목		3				3	
한문		2				2(0)	인문, 사회계만
수학		0(6)				0(6)	공과계만
체육		2	2			4	
교련(가정)		2	2	2		6	
계		38(37)	8(6)	4		50~44	

()은 공과대 이수학점이며 최저 44학점 이수함

1975학년도

1975년3월에 교양교육개선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요한 문리과대학장과 교직교수 최지운교수와 本研究者 中心으로 11회에 걸친 협의와 1次的 교내교수세미나(교양교육 세미나 1975.6.20)를 갖게 되었다. 세미나 발표자는 (1)아세아 주요 기독교대학의 교양교육의 새로운 동향(고범서학감) (2) 유럽主要國家들의 교양교육의 동향(본연구자) (3)國內 및 崇田大의 교양교육의 동향과 개선의 方向(최지운교수) 등 3명이었으며 참석교수들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갖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갖고 1975.7.16일자로 교양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조요한) 위원(조의숙 최지운)의 제안으로 教養教育課程改善案을 教育課程委員會 會議資料로 제출하였다.

本委員會의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다. (1) 教養教育課程은 現代社會 및 未來社會의 特性과 要求, 그 社會속에서 高等教育을 받은 者로서 有能하게 奉仕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人間, 急速한 變化속에 있는 各 專門分野의 現代學問의 構圖, 現 崇田의 特性(與件과 資源), 教養教育의 特異性등 여러 여건이 相關的 透視와 想定の 結果로서 그 構圖가 構想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2) 教養教育의 改善은 실제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개혁에 대한 태도와 노력 그리고 교수들의 혁신적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整備해주고 促進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本委員會가 提案한 改善案은 教養教育의 課程 構成을 위한 方向 제시에 不過하며 지속적인 修正과 향상을 전제로 하는 잠정안에 不過하다.

(3) 教養教育 改善을 위한 계획을 長期的이며 조직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 이유는 教育이란 本質的으로 시행착오적이며 실험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은 최선의 方案과 最大의 成果를 거두려는 조심스럽고 정성이 깃든 試圖의 연속이어야 하기때문이다.

(4) 教養教育이 指向하는 目標나 發源的인 必要性에 입각해서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형태나 과목의 내용과 지도방법이 통합적(integrated)이어야 하며 범학문적 접근(imterdisciplinary approach)의 方向을 취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입장을 밝히고 제안한 교양교육과정은 75년 9월 23일에 심의 검토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3개대학 공통필수를 34학점으로 하고 각대학별로 교양선택 9학점을 자율적인 교양선택과목으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76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현행 교양교육과정의 기본구성이 편성되게 된 것이다.(표11참조)

國家觀課程으로 국민윤리(2) 국사(3) 체육(2) 교련(가정)(6) 등 모두 12학점이며, 本校設立理念의 具現을 위한 基督教課程으로 6학점과 체플 8학기 의무적 출석으로 하였다. 言語表現課程은 國語(4) 英語(6) 10학점이며, 人文, 社會, 自然科學系列의 均衡적인 선택으로 소속

대학 이외의 他系列을 擇 2하여 필수케 하므로 6학점을 이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34학점은 3개대학 공통필수이다.

〈표 11〉 76-80학년도 교양교육 과정

과 정	대학별			문 리 대				법 경 대				공 대						
	학년별			1	2	3	4	1	2	3	4	1	2	3	4			
	학점																	
	과	부																
국 가 관	국	민	윤 리	2	2			2								2		
	교	련	(가 정)	6	2	2	2	2	2	2		2	2	2				
	체	육		2	2			1	1			2						
	국	사		2		2			2				2					
기 독 교	성	경		6	2	2	2	2	2	2		2	2			2		
언어표현	국	어		4	4			4				4						
	영	어		6	4	2		6				6						
인 문 계	철학	개론	} 택 1															
	세계	문화사						3								3		
	심리	학개론																
사 회 계	정치	학개론	} 택 1	} 택 2 (6)														
	사회	학개론				3											3	
	경제	학개론																
자 연 계	물리		} 택 1															
	화학				3			3										
교양선택	세계	문화사	} 택 3															
	심리	학개론																
	세계	문학																
	제 2	외국어 (독·불·중)																
	물리																	
	수학	I, II			9	6	3			9			9					
	문화	인류학																
	정치	학개론																
	사회	학개론																
	예술	감상																
고급	영어																	
전자	계산																	
계				43	28	11	4	23	16	4		25	6	8	4			

1976학년도

1975년 12월에 산업공학과가 신설되어 공과대학에 소속시키고 2부대학에 전자 기계공학과

를 설치인가 받아서 76학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본대학은 몇해동안 실험대학 제도를 유효하게 적용하려고하여 학점감축에 따르는 교과과정의 기본구조를 다양하게 현장연구법으로 연구하였고, curriculum을 재조정하여 각과목의 明細的 教授目標를 設定하게 되었다. 各教授들에 의하여 Syllabus를 조직적으로 작성케 하였다. 이러한 一聯의 各教授들의 努力은 學習指導體制(Instructional System)를 개선하는데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다.

1977학년도

77학년도 이후부터는 교양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및 지도방법면에 치중하여 연구하고 검토하여 재조정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과목등을 연구하게 되었다.

1977년은 開校 80周年이므로 “한국의 近代化와 基督教”란 주제 아래 이루어진 특별강연등을 비롯하여 대학별 특별학술발표등을 계획진행하였다.

오은수 교목실장의 도미유학으로 인하여 1977년 8·19일 교무위원회에서 本研究者를 신양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의 및 위임하고 교목실과 채플운동을 하게하였다.

명저읽기 프로그램은 대학 입학 후 스스로 지식을 探究하는 첫 단계의 독서활동으로써 넓은 범위의 명저를 읽히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1975년 6월 24일에 제7차 교양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교양교육세미나(76.6.20)에 대한 자체평가를 갖고 예술감상, 명저읽기, 인문계를 위한 수학들을 교양선택으로 개설해 줄것을 교과과정위원회에 건의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다.

1977년 8월 19일 전체교수회의 제1분과토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양교육에 관하여 (1)문리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저읽기 음악감상등은 그 성과가 좋으므로 이를 전체 1학년에 확대하고 의무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이 명저읽기 프로그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적인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되었다.

분과토의의 건의에 따라서 1977학년도부터 명저읽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교수에게 추천도서를 받아 그 중 22권을 선정하여 1학년초에 인쇄 배포하고 6회(3, 4, 5월과 9, 10, 11월)에 걸쳐서 국어과목과 연관시켜서 전대학 1학년에게 실시하였다. 선정도서중 6권에 대하여 5회에 걸쳐서 특강을 실시하고 독후감을 제출시켰다. 1학기에 1291부와 2학기에 1198부 합계 2489부(월 평균 약70%제출)의 독후감을 처리한 결과 매월 4내지 5명씩 29명 만 선정, 시상하였다 1년간의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하였을 때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1)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독후감처리가 미흡한 편이었고 (2)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3) 연 2회 정도의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으며 (4) 성적 반영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국어담당 소재영교수 보고에 의함)

78학년도에는 추천도서목록 40권中 15권을 권장하여 읽히고 79학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였다. 제1회(5.15)에는 8명의 수상작과 13명의 입선작을 선발하고, 2회에는(6.21)수상작 8명과 입선작 12명을, 그리고 제3회에는(10.25) 수상작 7명과 입선작 10명을 선발하고 제4회(123)에는 수상작 8명과 입선작 15명 모두 수상작 31명과 입선작 5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격려하였다.

80년도에는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명저읽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교수들에게서 받은 도서를 1학년에게 읽혔다. 가급적 쉽고 보편성 있는 책 (2) 가급적 현대인의 필독서나 동양서의 고전 (3) 손쉽게 구독할 수 있고 분량이 알맞은 책 등이다.

매월 한권정도를 읽히고 독후감을 제출한후 성적화하였으며 우수작은 선정하여 시상하고 격려한다.

80년 3월 6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교련 비교육대상자를 위한 학점취득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체과목으로 명저읽기(1학점)를 결정하고 국어과목으로서의 명저읽기는 분반을 A, B, C, D로 하였으나 다시 4.30일에 학처장회의에서 명저읽기 과목명을 변경하여 명저읽기 A, C, D를 문학감상으로 B를 예술의 이해로 결정하였다.

77년 8월 19일 전교교수회의 제3분과는 본교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토의하였다. (1) 교양교육에 대한 체계적 시정방안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구(교양학부에 해당)의 구성이 필요하다.

(2) 성경과목등 필요한 교양과목은 실험대학 교과과정상 많은 제약이 있으니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질적 개선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교양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학점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전문기구에서 논의되어야한다고 토론하고 건의사항으로 (1) 본교 교육의 좌표설정을 위한 장기적기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3)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등이었다.

1978~79학년도

1976학년 이후 교양교육과정의 기본구조는 별다른 변동이 없이 계속 운영되었다. 대학 및 학과도 변동이 없었다.

79학년도부터 2부대 공학계열에 화공, 전기, 전산학과등 3개학과가 증설되고 2부대 법정계열에 경영학과가 증설되었다.

1978.2.23일에 교범서총장은 UBCHEA(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의 대표로 내한한 Seely 박사와 대담을 갖게 되었다. 본대학의 상황설명을 한 결과 1977.10.10 개교 80주년 기념식전에서 가졌던 취임식사(式辭) 全文과 졸업권설(權說)(78.2.23)을

UB 재단본부에 제출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또한 대담중 본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向後 5개년간 (1978~82) 특별지원을 요청한바 78.4.1일까지 프로젝트계획서 제출을 승락받아 우선 1次年度의 細部 계획서와 예산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고(78.1.20)대학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팀 구성을 하게되었다. 여섯가지 영역에 나누서 계획서 작성작업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그 영역들이다.

(1) 영어교사훈련 프로그램에 김주현교수(2) 교수회의 프로그램에 고총장 (3) 학생지도상당 프로그램에 조의숙 (4) 사회사업가훈련프로그램에 조성경교수 (5) 기독교교육 프로그램에 김영한교수 (6)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어운배교수등 프로그램 작업을 시작하였다. 대전 캠퍼스와 함께 종합계획서와 예산서를 UB재단본부에 제출하였다.

1978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과 대전 양캠퍼스의 제1차 합동교수세미나를 갖고 73년부터의 실험대학운영의 실효를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법개선을 위한 재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세미나는 UB재단의 5개년 (1978.7~1983.6) 특별지원의 첫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러한 특별지원을 받게된 배경을 고범서총장은 다음과 같이 제1차년도 보고서 서문에 서술하였다.

80년대의 한국교육정책은 高等人力 養成에 초점을 맞추는 일과 大學入試에 실패한 再修生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79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육성책을 펴게 되었다. 서울大學校를 비롯하여 각 지방 國立 工科大學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으므로(세제은행으로부터의 차관 2억불) 私立大學의 재정난은 더욱 심하게 되었다. 본대학에 있어서는 교수 확보, 교육시설등을 위한 문제점이 심하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처할만한 재정난을 극복하기에 앞서 본교의 설립정신에 따라 교수들의 自體 研修를 통하여 교직원들의 기독교정신을 양양하는 일이 우선 할 수 밖에 없다. 제한된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우수한 대학으로서의 자원을 확보하는데는 투철한 교육철학을 지닌 기독교 대학인들의 규합이 필요하게 된것이라고 하였다.¹²⁾ 이상과 같은 취지와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첫 프로그램인 교수세미나에서 집단토의중 한 분과에서는 교과과정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그 결과 보고는 (1) 언어기능을 높이도록 교과과목이 설정되어야 하며 (1) 실험적인 새과목 개발이 필요하고 (3) 교양교육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고 (4) 선택과목이 증설되어야 하고 (5) 통합과목이 개발되어야 하고 (6) 부전공과목도 증설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의에 따라 79년 1월 합동교부위원회를 개최하여 (1) 교양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2) 실험대학운영위원회를 두고 (3) 학사개혁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여 1979학년도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기술하면 5개년간(1878~1982)의 UB프로젝트주제와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2) UB Annual Report (1978-1979), 서문.

- (1)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대학의 기능
 - (2) 기독교고등교육에 대한 과학과 기술의 영향
 - (3) 기독교고등교육에 끼친 전통문화와 영향의 창조적인 면
 - (4) 世界社會(World Community)時代의 기독교고등교육
 - (5) 성숙시대(The Age of Maturity)에 있어서의 기독교고등교육
- 위의 주제에 따라서 개최될 교수협의회 회의설교제목은 다음과 같다.

- (1) 변동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신앙
- (2)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청지기(Stewardship)
- (3) 과학 기술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신앙
- (4) 인류 봉사를 위한 기독교 선교
- (5) 성숙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신앙

1979학년도

79학년도 1학기로부터 교양교육위원회 부위원장책임을 본연구자는 보임 받고 합동교수회의에서 제안된 안건들을 UB재단의 지원과 관련시켜서 실행하게 되었다.

79년4월 7일에 UB Director(양캠퍼스)회의를 갖고 제1차년도 프로그램 평가를 하였으며 80년도계획을 논의하였다.

1979년 7월 6일에 통합과목 개발의 제1차년도 과제로써 기독교교육을 위한 과목들을 잠정적으로 人間과 神(Man and God)이란 제목아래 연구하기로 하였다. 과목, 문리대 학장및 교양위원회 책임자(부위원장)과 위원장인 총장이 회집하여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안내용에 대하여 (2) 접근방법에 대하여 (3)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4) 교수요목작성에 앞서 학습영역(Scope)설정 문제에 대하여 등 협의한 결과 3권으로 나누어서 2학점씩 6학점으로 하고, 1권은 “개인과 삶”, 2권은 “사회속의 삶”, 3권은 “역사속의 삶”으로 잠정적인 제목을 설정하였다. 본대학 설립이념에 따라 본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ㄱ)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ㄴ) 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ㄷ) 문제해결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였다. 그러므로 1권에는 1장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2장에 인간과 신의 관계는 왜 필요한가? 3장에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선배들은? 4장에 기독교의 독자성(기독론)으로 하였다. 1차 연도는 1권에 한해서 개발하기로 하며 각자 연구하여 7월 31일에 다시 회집하여 토의하고 통합적인 내용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위의 대단원을 다시 소단원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신학을 전공한 교목을 비롯하여 기타해당교수에게 11월까지 해당항목을 위한 Syllabus를 제출하도록 의뢰하였다. (참고로 소단원을 기록하기로 한다)

제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1) 문제의 인간 (2) 현대인의 고민 (3) 자유주의적 인간이해(철학적인 면에서) (4) 심리학적 인간이해(심리학적인 면에서) (5) 비인간적 기계적 인간이해(사회학적인 면에서) (6) 마르크스주의적인 인간이해(공산주의적인 면에서) (7) 생물학적인 인간이해 (8) 생태학적인 인간이해

제2장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왜 필요한가?

(1) 인간실존의 불합리성 (2) 허무무신론 (3) 휴머니즘 (4) 종교철학적 이해 (5) 성서적 계시 이해(성서적인 인간이해)

제3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발자취 (1) 바울 (2) 어거스틴 (3) 루터

제4장 기독교의 독자성

이 장은 여러 교목에게 내용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동년 12월 19일에 Syllabus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해당단원에 관하여 원고 청탁을 한 후 80년 1학기부터 교재를 사용토록 할것을 협의한 후 추진하여 오다가 학생소요사태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81, 82학년도에 이르러 大學人口의 급격한 팽창을 예상하면서 우선 UB재단의 지원자금으로 1차 연도(78.7—79.6)협동과목 또는 동일과목(Cooperative Course)으로 국어와 영어를 대상과목으로 선정하고 국어는 대전캠퍼스에서 영어는 서울 캠퍼스에서 연구 개발하기로 하였다. 78학년도 2학기부터 교양영어 담당 교수들의 협의에 의하여 1학년 영어 교과서의 개편을 마치고 79학년도 부터 사용하며 협동하기로 하였다.

교재개편과 아울러 교수법개선이 뒤따라야 하므로 교양영어 책임교수로써 김준민교수를 위임하게하고 동일과목의 개선에 더욱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 가르치고 (2)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로 의사전달이 가능하게 되도록 가르치며 (3) 누구든지 의사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4)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어떤 소재의 글도 자유스럽게 읽을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문과 교수들의 협력을 돈독히 하며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고 직접 언어표현을 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도록 계획되었다.

본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위한 협의 및 연구는 73년도 실험대학 이후 계속되어 왔다. 제1단계는 73—75년 3년간은 문리·법경·공과 대학 공통으로 독본이 주가 되었으나 제2단계는 76—80년까지는 독본과 SE(Spoken English)와 Lab(laboratory)으로 연관성있게 교육하되 법경 공과대만 공통적이고 문리대는 인문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3단계는 79—80년동안 2단계의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실험영어반을 설정하게 되었다. 독본과 SE, Lab을 Moneta S.

Prince(미국선교사) 교수가 3학점 (3시간) 가르치면서 통합하여 교수할 수 있는 교수법 개선의 길을 실험하게 되었다. 79학년 2학기에는 3개대학에서 선정하여 1개반을 실험영어반으로 하고, 80년 1,2학기는 문리대와 법경대를 합하여 1개반과 공과대 1개반, 모두 2개반으로 운영하고 81년도 1,2학기는 각대학별로 1개반씩 3개 반으로 분반하여 가르쳤다. 실험영어반 운영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실험영어에 관하여는 교양영어의 학습지도 개선을 위한 실험적 연구과정이었다. 79학년도 1학기에 새로 개발된 교재에 의하여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독본과 SE와 Lab을 각각 교수하여 독본시간에 文法과 文章構成과 의미를 파악한 후에 외국인교수의 SE시간에 실제로 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훈련하며 그다음 Lab에서 시청각자재를 활용한 듣기와 말하기를 훈련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은 훈련과정을 반복하는 반은 100餘명의 대단위 학습의 독본시간을 거쳐서 30명정도의 SE의 훈련을, 그리고 40명정도의 Lab을 거치면서 세단계를 반복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79학년도 2학기부터는 실험영어반에서는 한 교수가 각각 다른 단계를 모두 통합적으로 지도할때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실험하게 되었다. 특히 어학학습의 능력별 지도를 실험하였을 때의 효율성을 본대학 학생에게만 아니라 T.R.I(Teachers Retraining Institute for English)=(중등학교 영어교사 특별연수과정)을 문교부에서 위촉받아 외국어 지도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음 79.9—80.2 연수생들에게도 능력별 분반을 하여 실시한 결과 효율적이었음이 지적되었다.¹³⁾

실험영어반의 제1차계획인 79학년 2학기에는 1개반 편성을 위하여 전교대상으로 후보생(독본, SE, Lab 모두 A인 학생)에게 선발시험을 하고 30명을 선출하였다. 6월 30일에 선발된 학생을 발표하였으나 2학기를 위한 조기사간표작성이 끝난 후였으므로 토요일에 3시간 연속수업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교련, 축제, 중간고사등 4주간 공강이 생겼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2학기 후반기에 월 수 금 아침 8시부터 수업시간을 변경하였으나 소기의 결과는 거두기 어려웠다.

1980년 1학기에는 제2차적으로 문리대와 법경대생을 합하여 1개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교수에게 위탁하고, 공과대생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한국인 교수에게 위탁하여 한국인 교수의 통합적 교수방법 개선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역시 一般化하기는 어려웠다. 80, 81학년도 1학기에는 신입생 중 선발대상자를 입학당시에 발표하였고 80년도 2학기부터는 외국인 교수에게 위임 실시시간중 학생의 독본 실력은 높았으나 청취능력은 역시 저조하였으므로 SL(Sound Library) 시설 활용으로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적인 시간을 할당하였고 단어 암기 능력과 아울러 속독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⁴⁾

13) 조의숙, 中等學校 英語科教師 特殊研修教育課程 開發 및 운영에 관한 연구, 崇田大 論文集 제10집 1980, pp. 73-108

실험영어반 운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교양영어 3학점에 비하여 실험영어반 3시간과 정규반 6시간은 너무 폭이 넓다.
- (2) 대학별 수강생의 차이가 너무 크다.
- (3) 30명 학급 편성(S.E)에 강사초빙이 어렵게 된다.
- (4) 3,4학년 전원이 교련면제자가 되므로 구어영어(SE)의 필요성을 실용성면에서 요구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되어 81학년도 1학기부터 교양영어로서의 SE과목을 교양선택으로하고 2학점 3시간으로 신설하게 되었다.

80학년도

2부대에 응용수학과와 법경제열에 법학과 및 무역학과가 증설되었다.

80학년도부터 교련이수학년을 1,2학년만으로만 하게 되므로 교련 면제 학생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따라서 교양선택 과목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80년 3월 6일에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교련 비교육대상자(교련 수강유보자)를 위한 학점 취득을 위하여 (1) 이미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중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2) 구체적인 대치과목으로 1학기부터 시행할 과목은 명저읽기(1) 타자A(1) SL(0.5) 또는 여학생교양(가정학1,3학년) 과목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3) 국어과목으로서의 명저읽기는 폐지하고 명저읽기 A,C,D를 문학감상으로하고, B는 예술의 이해로 하였다.

80년 7월 11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80학년도 2학기부터 채플은 6학기 출석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2) 실험영어반은 각 대학별로 1개반씩 설강하고 정규반은 문리대 법경대 공과대 2부대 공통으로 독본(4) Lab(2)로 하고 SE(구어영어)는 교양선택으로 전학년 학생에게 2학점(3시간)으로 신설하고 1학년 희망자에게 한하여 SE특강을 개설한다.

80년 12월 4일 교과과정 위원회에서는

(1) 81학년도부터 국민윤리를 4학점으로 하고 (2) 교련을 4학점으로 인하조정하며 교양학점을 재조정하였다. (3) 교양학점 43학점중 교양필수(32)와 교양선택(11)으로 하되 9학점은 대학별 선택이고 2학점은 교양선택과목중에서 자유선택으로 하였다.

(4) 교양영어학점은 전 대학 공통으로 1,2학기 3학점씩 6학점으로하고 정규반은 독본(2) Lab(1학점 2시간)으로 하고 실험영어반(3)은 외국인교수가 담당한다. SE(구어영어)는 교양선택(2학점3시간)으로 신설하고 1학년은 희망자를 위한 SE특강을 설강하기로 한다.

14) UB Annual Report (80-81), p.9.

81학년도

81학년도에 문리과대학에는 문학계열에 기존학과인 영, 철, 사, 사사과와 신설학과 국, 독, 불어불문학과등 7개 학과이고 이학계열에 기존학과인 응수(2부대) 학과를 주간경영으로 하고 물리학, 화학등 3개 학과이며 모두 10개 학과로 증과되었다.

법경대학은 회계 및 행정학과가 증설되었다. 법정계열에 2개 학과 경상계열에 4개 학과로 6개 학과가 되었다. 공과대학은 중전과 같았다. 81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로 고등교육정책이 바뀌게 되어 실제적으로 실험대학의 계열별 입학정책이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1년 1월 8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교양필수 과목중 국민윤리 2학점 증가로 인하여 타계열 2과목의 학점을 3학점에서 2학점씩으로 감축하였다.

(2) 교련 비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교련대치과목을 교양선택 과목에 추가한다. 문학감상(2) 타자(1) 속기(1) 가족관계(2) SE(구어영어)2

(3) 여학생은 가정학을 4학점 필수로 하고 교련대치과목이나 개설된 교양과목중에서 2학점 선택하여야 한다.

(4) 교련 비교육 대상자는 소속대학별 교양선택(9)을 이수하여야 한다.

(5) 교련대상자와 교련비교육 대상자, 그리고 여학생이 각각 취득하였어야 할 최저 교양학점은 다음과 같다(표12 참조)

<표 12> 1981학년도 교련대상자, 비교련대상자, 여학생 교양학점 비교표

	교련대상자	비 대상자	여 학생
교 양 필 수	34	28	32
대 학 별 선 택	9	9	9
자유선택(교양과목중)	0	6	2
계	43	43	43

(6) 대학별 교양선택(9)은 각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것을 학처장회의(80.12.18)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학에 위임하도록 한다.(표13 참조)

본교의 설립이념 구현을 위한 성경과목과 체플출석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표14 참조)

여학생 교양을 위한 교양과목(6)은 1965년도 이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여학생활동인 바자전 시와 결들여져서 이루어졌다. 65년도 숭실대학요람에 의하면 여학생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6학점을 교양필수로 이수하며 여성에티켈, 아동교육, 가정학특강, 가정문제연구, 사회문제연구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교육내용을 사회적요구와 개인적요구의 변천에 따라 계속 연구 조정하여 오다

<표 13> 1982학년도 교양교과과정표

과	목	학	점
기 독 교 과 목		6+채플 6학기 출석의무	
국 민 윤 리		4	
국 사		4	
체 육		2	
교 련 (가 정)		6(4) 여학생 가정	
국 어		4	
영 어		4	
인 사 문 회 연	타계열 선택 2	4	
교 양 선 택 (대학별선택)		9 교련면제자는 15학점 여학생은 11학점	
		43	

<표 14>

	~68학년도	69~70학년도	71~72학년도	73~현재
(1) 성경학점	16학점	12	8	6
(2) 채플회수	60~64학년도까지 주당 5회	65~69학년도 3(월, 수, 금)	70~71학년도 2(월, 목)	72~현재 1
(3) 채플 출석의무	8학기	//	7	6

가 1973학년도부터 매학기 3년간 1학점씩 여학생교양학점을 가정학과목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운영목표를 설정하였다.

- (1) 남녀공학대학에 있어서의 여학생교육의 특성화 방안모색
- (2) 여성지도자와 가정주부로서의 자질향상
- (3) 남녀공학대학에 있어서의 여학생의 협동정신함양과 자질계발을 위한 학습전시회 운영위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여섯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학점과정을 학습하게 하였다.

- (1) 남녀공학과 효율적인 대학생활
- (2) 인간발달 과업에 따른 여성의 역할
- (3) 여성이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 (4) 인간관계와 집단지도성
- (5) 가족주기 및 가족계획
- (6) 가정관리(영양관리, 의상관리, 주택관리, 가정경제)

74년도에 이르러 부분적인 변경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남녀공학과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Orientation과 性教育
- (2) 人間關係(인간발달 과업에 따른 女性의 役割)
- (3) 영양관리(가족의 영양관리)
- (4) 가정관리(가족관계 가족주기)
- (5) 간호심리학(가족의 건강(신체적 심리적)관리)
- (6) 가정경제(소비자교육)

79년도에 이르러서 다시 부분적인 수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男女共學을 위한 Orientation(기독교적 性觀과 Date의 의미, 民主社會에 있어서의 女性의 役割)
- (2) 아동관리(人間發達課業에 따른 유아를 中心한 가족관계)
- (3) 영양관리(가족의 식생활을 위한 영양과학)
- (4) 의상관리(의 생활의 효율적인 방안과 의류과학)
- (5) 건강관리(가족의 신체적, 특히 정신적 심리적 건강관리)
- (6) 가정관리(가정경제와 소비자교육)

78년 9월 5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1.3학년 과목중 비교련대상자가 학점취득을 요구할 경우 교양선택으로 인정하기로 하다.

79학년도 1학기부터 남학생 수강생이 수명 등록하게 되었다.

81년 1월 8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남학생 교련이 1.2학년에만 이수하게 되면서 여학생교양인 가정학을 4학점으로 인하하고 그 내용은 가족관계 가정관리 가정경제 영양관리로 통합하게 되었다.

교양학점이수와 함께 여학생작품전시회를 매학기 또는 매학년에 한번 가지고 특강을 통해서 학습한 작품전시회를 하게 하였다.

통합과목 개발에 대하여는 79학년도부터 UB재단의 지원에 따라 첫째, 기독교과목을 人間과 神(man and God)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였고 둘째, 자연계 과목을 人間과 自然(Man and Nature)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物理科學을 中心으로하여 天文學, 地學 그리고 生物學등 통합과목으로 개발하려고 시작하여 물리과학만 교재가 개발되어 80학년도 1학기부터 사용하게 되었고 기타영역은 中斷狀態에 있다. 세째는 人間과 文化(Man and Culture)인데 Syllabus설정을 의뢰하였으나 시작은 할 수 없었다. 네째, 人間과 社會(Man and Society)는 시작도 못한 채 UB Project의 최초 5개년승인 事項이 변경되면서 계속하지 못하였다.

위의 통합과목 개발은 인문 사회 자연 계열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며 각 전문분야의 개론보다 범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이었다.

1965년부터 1982년까지 17년간의 교양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학점비교 일람표에 의하여 볼 수 있다.(표14참조)

〈표 15〉 1965—82학년도 교양교과과정 일람표

과 정	과목별	연도별										
		65	66—67—68	69	70	71—72	73	74	75	76—80	81	82
국 가 관	국 민 윤 리 교 련 (가 정)	(6)	(6)	(6)	6(6)	6(6)	6(6)	6(6)	6(6)	6(6)	6(4)	6(4)
	체 육 국 사(한국문화사)	8	8	8	4	4	4	4	4	2	2	2
기 독 교 정	성 경(기독교과목)	16	16	12	12	8	6	6	6	6	6	6
언 어 표 현	국 어	4	4	4	4	6	6	6	6~3	4	4	4
	영 어 (SE, Lab)	12	12	10	10 ^{b2} (La 문법대에만)	14	10	10	10~8	6	6	4
	제 2 외 국 어	10	8	6	6	교양선택 4						
인 문 계	철학개론 세계문화사 심리학개론	택 1	4	4	4	4	3	3	3	택 2 6	택 2 4	택 2 4
	경제학개론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택 1				2	—	3			
자 연 계	물리, 화학, 생물	택1		4	4	4	4	4	3	2	2	
	자 연 과 학 실 험						1	1	1			
예 술	음 악	2	—	—	—	—						
	수 학 한 문			4	4	문리, 법정에 2	2	2	2	2		
교양선택										9	9	9
계		64	60	56	56~64	56~54	52~53	50~51	50~44	43	43	43

본대학의 발전단계는 70년도에 실험대학운영으로 인하여 학사개혁의 內實을 기하게 되었고 行財政의인 기초를 확고히 하게 되었으나 國內에서는 最初로 가진 兩캠퍼스제도보다 分校制度로 바뀌면서부터 더욱 地域性의 사회적 대우문제로 教育行政上 애로점이 생기게 되었다고 본다.

문교부는 75학년도부터 전면적인 실험대학 실시계획에 따라서 졸업취득학점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감축하는 일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教育內容과 指導方法의 연구와 개선에 대하여는 아직 요원한 채로 大學人口의 팽창이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81학년도

부터 졸업정원제도라는 새로운 課題를 大學社會에 안겨주었다.

V. 東京大學의 敎養講座

東京大學의 敎養講座는 1978년도 1학기부터 綜合科目이라는 강의를 立案한 全大學 Curriculum위원회에서 추진하였다. 그 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一般教育和 專門教育과의 유기적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方策을 실시하고 強化에 努力한다

(2) 努力의 일환으로 學部 3학년 이후의 전문교육과 併行해서 一般教育을 개설하되 전문적인 견지에서 一般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

(3) 一般教育이란 단순히 專門教育을 위한 기초에 머물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分化되고 專門화된 지식이나 技術의 자리를 學問과 現實 전체 안에서 찾고 또 자리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人格안에 통합할 수 있는 힘을 양성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4) 이와 같은 취지를 더욱 추진하려는 시도로써 종래 人文, 社會 및 自然의 각 分野안에서 실시해 왔던 소위 綜合코스의 기획을 확대하여 이 세 분야를 통틀어 새로운 觀點에서 綜合科目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것은 전 학부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하여 專門分科를 초월하여 一般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¹⁵⁾

위의 취지에 따라 주어지는 綜合科目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그 자체보다도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이 문제에 부딪치며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가 어떻게 思考를 전개시켜 나갈것인지 즉 “事物에 대한 思考方式”을 확립하는 힌트를 제공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이것이 종합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本講座의 중요한 취지가 된다고 생각한다.¹⁶⁾고 설명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역을 배려한 것 같다.

1978년도 1학기에는 12회강의에 無限과 有限

1978년도 2학기에는 11회 // 價値와 目的(人間生活과 學問)

1979년도 1학기에는 11회 // 時間과 人間

1979년도 2학기에는 11회 // 時間과 進化

1980년도 1학기에는 11~12회 // 遇然과 心然

15) 週間朝鮮 690號 (1982. 5. 9), pp. 26~27

16) 앞의책, p. 33.

Ⅵ. 서울大學校의 敎養教育 改善研究

81년 6월 11일—13일 3日間에 걸쳐서 “春季 全國綜合大學 敎務處長協議會”가 개최되었던 때에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과제 “大學 基礎課程의 敎養教育 改善을 위한 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敎養科目을 概論科目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근래의 學問的 知識의 發達과 관련된 것이다. 과거 2,30년간 학문의 발달과정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樣相의 하나는 大學의 傳統的인 學科 區分이 반영하는 학문간의 區別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任意的이라는 것이다. 그런 學問들이 각각 다루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現象이나 문제들은 사실상 여러 학문들이 공통으로 참여함으로써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認識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¹⁷⁾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도 敎養科目을 概論으로서가 아니라 觀點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논술했다. 또한 學生들의 必要(needs)가 무엇이며 어떤것이 알고싶은 對象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學生들의 必要로하는 것은 學問的 體系가 아니라 그 學問이 학생에게 관심있는 現象 내지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관련되는가하는 것이다. 學生의 이러한 必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교양과목들이 學問的 區分을 따라 조직될것이 아니라 現象이나 문제를 中心으로 조직되어야할 것이다. 즉 學問領域別로 조직될것이 아니라 關心領域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영역은 다음과 같다.¹⁸⁾

- 영역 I 한국사와 國民倫理
- II 국어와 작문
- III 體育과 敎練
- IV 외국어와 외국문화
- V 文學과 藝術
- VI 歷史와 社會
- VII 分析的 思考
- VIII 科學

17) 金瑗東外 3, 大學基礎課程의 敎養教育 改善을 위한 研究, 서울대학교, 1981, p.13.

18) 앞의 책 pp.26-27.

VII. 結 言

위에서 영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으나 人文社會 自然系列에 대한 綜合的인 觀點을 시도한것은 개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偏重되지않은 方向으로 內容 選定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各國의 여러大學들이 教養教育의 改善을 위한 研究들을 하게된것으로 보아 人間社會의 變遷에 따라서 人間의 關心事와 要求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直感的으로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에 부과된 課題인 졸업정원제와 함께 制度面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어떤 學生들을 入學시켜서 어떤 人間으로 養成시켜야만 한국인이 人類 歷史안에서 설자리가 있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參 考 文 獻

- 金宗西, 現場研究法の 理論과 實際, 서울, 培英社, 1968, p. p. 46~54.
 週間朝鮮, 690號, 1982. 5. 9.
 Brubacher, J.S., *Modern Philosophies of Education*, (4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9.
 Cawelti, G., "Redefining General Education for the American High School", *Educational Leaderships* (Vol 39, No.8, May 1982), p.570.
 Cheever, D.S., Jr. & Sayer G.A., "How We Defined Our Core Curriculum", *Educational Leaderships* (Vol 39, No.8, May 1982), p. 599.
 Husen Torsten, "Present Trends in Education", *Viewpoints/ Controversies* (Vol. XII, No.1, 1982.)
 Maconber, F.G., *Teaching in the Modern Secondary School*,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 Inc., 1952.

資料 :

- 金環東外 3, 大學基礎課程의 教養教育 改善을 위한 研究, 서울大學校, 1981. (春季全國綜合大學 教務處長協議會)
 숭실대학 요람 (1965-1972)
 숭전대학교 요람 (1973-82)
 숭전대학교 각종 회의록(교과과정위원회, 교양교육연구 위원회, 교양교육위원회, UB Project Director 회)
 숭전대학교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자료(교수회의, 교수세미나)
 숭전대학교신문 198號(72. 7. 25) 208호 (73. 4. 25)
 연세대학교, 고등교육의 개혁 세미나, (1972. 10. 4-7) 지역대학 특성화를 위한 세미나(72. 4. 27-28)
 이화대학교, 教養教育으로서의 社會教育세미나(72. 6. 23-24)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이념 · 목표확립을 위한 세미나 (72. 10. 13-14)
 한국 교육학회, 한국교육학의 발전, (1972. 6. 10).

1978 PROPOSAL IN REFERENCE TO UNITED BOARD GRANT OF \$ 200,000 by SOONG JUN UNIVERSITY.

*ANNUAL REPORT TO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July 1, 1978- June 30, 1982) from SOONG JUN UNIVERSITY*